NH투자증권

NH Morning Meeting Brief

주식전략/경제

전략 인사이드/글로벌전략	변동성이 높아진 미국 시장, 해답은?	김 환

대체투자

글로벌 인프라/Bi-Weekly	멈춰 있던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정연우

산업/기업분석

이리츠코크렙 (Hold하향/TP:5,200원하향)	도약 의지를 보여줘	이은상
롯데리츠 (Hold유지/TP:3,500원유지)	중요한 다음 스텝	이은상
컴투스 (Hold유지/TP:43,000원하향)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안재민
한글과컴퓨터 (Not Rated)	성장에 진심	심의섭
하이브/Spot Comment	자회사 어도어 관련 노이즈 발생	이화정

해외주식

P&G (PG.US)	북미 수요 우려는 기우	한 위

NH Morning Meeting Brief는 당사 Research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nhqv.com)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상 투자의견이 제시된 기업 중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NH투자증권은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주식전략/경제

전략 인사이드/글로벌전략

김환 (02-2229-6761)

변동성이 높아진 미국 시장, 해답은?

원문보기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6개월 만에 월간 기준 반락했습니다. 정책 및 실적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준 정책 방향성과 실적 개선 여부에 대해 판단해볼 시점입니다.

- **물가 불확실성과 펀더멘털 회복의 갈림길**
  - 최근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불안으로 유가도 급등. 이에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짐. 일각에서는 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
  -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는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 유가가 현 레벨 이상의 국면이 이어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 높음. 이에 따른 물가지수별 영향을 추정해보면, CPI가 PCE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 이는 물가지수 내 CPI의 에너지 비중이 PCE보다 더 크기 때문
  - 연준은 PCE 지표에 무게를 둔다는 점에서 PCE의 제한적 물가 상승이 중요. PCE 물가의 낮은 유가 민감도를 감안할 때 연준 정책의 방향성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판단
  - 한편 미국의 견조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 IMF는 올해 미국이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실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여타 선진국 대비 이익 개선이 더 견조할 것으로 예상. 이와 같은 펀더멘털 개선은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변수일 것으로 판단

- **고금리, 고물가 국면에서는 퀄리티 업종이 안정적**
  - 최근 ASML의 부진한 실적을 확인하면서 빅테크 업체 실적 전망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 다만 ASML은 연간 실적 가이던스는 기존과 유지. 즉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은 일시적 현상일 것으로 예상
  - 한편 미 빅테크 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음. 하지만 이 기업들의 낮은 밸류에이션, 높아진 이익 레벨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견조한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고물가, 고금리 국면에서는 마진율이 높고 현금 흐름이 견조한 빅테크 등을 포함한 퀄리티, 빅테크 업종의 상대적 안정적 펀더멘털이 부각될 전망
  - 종합하면 단기적으로 정책 및 실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주가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주가 변동성 확대 시 미국 퀄리티 업종 중심의 매수 전략을 권고

대체투자

글로벌 인프라/Bi-Weekly

정연우 (02-2229-6539)

멈춰 있던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원문보기

- **멈춰 있던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미국의 전력 수요는 정체되기 시작.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
  - 다만 향후 5~10년간 가파른 전력 수요 상승세가 나타날 전망
  - 1)데이터센터 시장 성장, 2)미국의 자국 내 제조업 육성, 3)건물, 운송 수단 전기화, 4)연료전지 시장 성장, 5)잦아진 극단적 기후 현상 등이 전력 수요 상승 견인
  - 화석연료 발전원이 사라지고 신재생 발전원이 늘어나는 환경 속, 전력 수요 급등을 뒷받침할 전력망 투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전력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
- **활발한 전력망 투자 유도 정책 등장할 전망**
  - 현재 미국에 위치한 신재생 발전원을 그리드에 추가하는 데에는 5년 이상 소요. 계통 안정성 제고를 위한 그리드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
  - 계통 연결을 기다리는 미국 발전 용량은 2,600GW까지 증가했으며, 이 중 95% 이상은 저탄소 발전원
  - 지난해 7월 미국 FERC(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신규 발전원의 계통 연계를 간소화하는 규정 도입
  - 또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요도가 높아진 송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회의를 오는 5월 13일 개최
  - 해당 회의에서 향후 미국의 전력망 투자 속도를 향상시키는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며, 향후 유틸리티들의 활발한 전력망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등장할 전망
- **주간 글로벌 인프라 시장 동향**
  - 지난주 글로벌 인프라 지수 총 수익률 +0.27%. 가파른 시장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틸리티, 오일&가스 미드스트림 섹터가 상승하며 글로벌 인프라 지수 소폭 반등
  - 대부분의 인프라 섹터가 하락했지만,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와 함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오일&가스 미드스트림 인프라가 우수한 성과 기록

산업/기업분석

이리츠코크렙 (088260.KS/Hold하향/TP:5,200원하향/CP:4,785원)

이은상 (02-2229-6841)

도약 의지를 보여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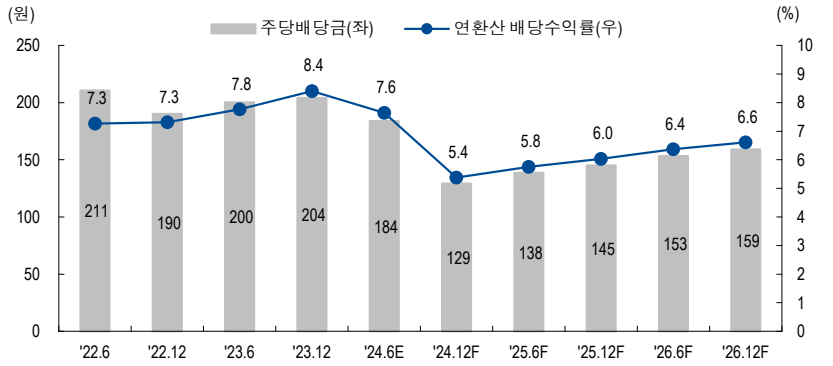
원문보기

3년 전 조달했던 차입금과 사채의 만기가 내달 도래하는 바 금융비용 상승 불가피. 유보 현금 활용해 당장의 배당 보전은 가능하겠으나 장기 전략 부재한 상황. 신규 자산 편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

- **이제야 맞이하는 리파이낸싱, 요원한 자산 편입**
  - 투자의견을 Hold로 하향하고, 목표주가는 5,200원(기존 5,900원)으로 12% 하향.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하향은 1)'24년 재조달금리 추정치 상향, 2)영구성장률 하향(기존 2.5%에서 2.0%로)에 기인
  - 올해 5월, 차입금과 사채 4,300억원 전량 만기 도래. 3년 전 조달한 금액으로 평균 조달금리는 3.0%. 기존 재조달금리 추정치는 5.0%였으나 5.2%로 상향.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지연되며 국채 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 기존 적용 영구성장률에는 위탁관리리츠 변경인가 관련 협의 완료 후 추가 편입에 제약이 사라진 점을 고려해 프리미엄을 부여했었음. 하지만 금리가 여전히 높아 신규 자산 편입이 요원한 가운데 향후 신규 자산 편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점을 반영해 영구성장률 하향

- **당장의 배당 보전은 가능하겠으나 결국 장기 전략이 필요**
  - 리파이낸싱 이후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배당 훼손 불가피하겠으나 유보 현금 수준 고려 시 배당 일부 보전 가능할 것으로 예상. 동사는 리테일 점포만으로 자산을 구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노후화. 따라서 리츠의 경쟁력 유지 위한 신규 자산 편입과 섹터 확대는 필수적. 현 주가 기준 12MF 배당수익률은 7%, P/NAV는 0.8배 수준

이리츠코크렙 예상 주당배당금 및 배당수익률



자료: 이리츠코크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롯데리츠 (330590.KS/Hold유지/TP:3,500원유지/CP:3,145원)

이은상 (02-2229-6841)

중요한 다음 스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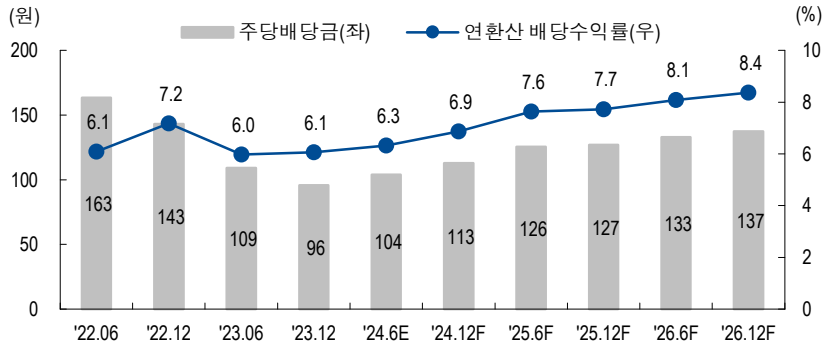
원문보기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되며 올해 리파이낸싱 통한 수익성 개선폭은 제한적. 리테일 단일 섹터만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바 섹터 확대는 필수. 롯데 그룹 내 계열사 자산을 활용할 전망

- **올해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
  - 투자의견 Hold와 목표주가 3,500원 유지. 투자의견 Hold를 유지하는 이유는 올해 리파이낸싱 통한 금융비용 절감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 올해 만기 도래하는 잔존 차입금과 사채 규모는 4,650억원이며 평균 조달금리는 5.2%.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어 올해 예상 재조달금리는 5.0% 수준에 그침
  - 할인율은 직전 보고서와 동일하게 20%를 적용.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재차 지연되며 인하 횟수와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22년 이후 차입금과 사채 만기 시점을 분산시킨 동사는 향후 2년간 계속적으로 리파이낸싱이 예정되어 있음. 롤오버를 통한 금융비용 절감분과 배당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현 주가 기준 12MF 배당수익률은 7%, P/NAV는 0.5배 수준

- **섹터 확대가 필수적인 리테일 리츠**
  - AUM 기준 리테일 점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절대적. 하지만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리테일 점포의 경쟁력은 크게 하락함. 대형마트 3사도 점포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음('19년 424개 '23년 397개). 리테일 단일 섹터만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바 섹터 확대는 필수적. 동사는 향후 롯데 그룹 내 타 계열사의 자산 편입을 통해 섹터 확대 시도할 것. 상장 이후 롯데쇼핑의 50% 지분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타 계열사의 지분 투자에 나설 전망

롯데리츠 예상 주당배당금 및 배당수익률



자료: 롯데리츠,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컴투스 (078340.KQ/Hold유지/TP:43,000원하향/CP:38,850원)

안재민 (02-768-7647)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원문보기

새로운 CEO, 미디어 사업 구조조정, 퍼블리싱 중심의 전략 변화 등 여러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컴투스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 다만, 영업이익의 의미있는 개선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

- **다양한 변화에 대한 기대**
  - 컴투스에 대한 투자의견 Hold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48,000원에서 43,000원으로 하향. 당초 예상보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조금 늦어져 2024년 이후 실적 추정치를 소폭 하향하였기 때문. 목표주가는 12개월 Forward EPS 2,525원에 Target PER 17배를 적용하여 산정
  - 하지만, 새로운 CEO에 대한 기대, 미디어 사업의 구조조정, 퍼블리싱 중심의 전략 변화, 여전히 탄탄한 '서머너즈워'와 야구 게임 IP 등 여러 긍정적 요인이 하반기로 갈수록 부각될 전망
  - 3월 28일 출시한 '스타시드'는 구글 앱스토어 기준 20위권에 안착해 괜찮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실적을 빠르게 개선시킬 정도의 매출 규모는 아님

- **1분기 실적 Preview: 아직은 영업적자 불가피**
  - 컴투스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679억원(-12.8% y-y, -11.9% q-q), 영업이익 -70억원(적자지속)으로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 -42억원 및 시장 컨센서스 -81억원과 유사할 전망. 아직 영업이익 흑자전환은 쉽지 않을 것. '스타시드'가 3월 28일 출시되어 초기 매출 반영되지 못한 가운데, 관련 마케팅비용(149억원, +5.7% q-q)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 2분기는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 10주년 이벤트와 '스타시드' 매출의 3개월 반영으로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컴투스 1분기 실적 Preview (K-IFRS 연결) (단위: 십억원, %)

	1Q23	2Q23	3Q23	4Q23	1Q24E					2Q24F
					예상치	y-y	q-q	기존추정	컨센서스	
매출액	192.7	228.3	186.7	132.0	167.9	-12.8	27.3	167.9	169.4	206.6
영업이익	-14.8	-5.3	-1.6	-11.5	-7.0	적지	적지	-4.2	-8.1	0.9
영업이익률	*-7.7*	*-2.3*	*-0.9*	*-8.7*	*-4.2*	-	-	*-2.5*	*-4.8*	*0.5*
세전이익	51.7	5.8	19.3	-11.9	-1.1	적전	적지	7.8	4.0	5.6
(지배)순이익	37.3	6.8	18.0	-22.3	-0.9	적전	적지	6.2	2.3	4.4

주: IFRS 연결기준
자료: 컴투스,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한글과컴퓨터 (030520.KQ/Not Rated/CP:22,150원)

심의섭 (02-2229-6036)

성장에 진심

원문보기

온프레미스 제품 성장과 더불어 공공 클라우드 전환 수혜로 실적 성장 지속 전망. 김연수 대표 취임 이후 오피스 및 AI를 중심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으며, 본업 중심 사업 시너지 확대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

- **실적도 AI사업도 순항**
  - 격년 출시되는 한컴오피스 2024 출시 효과에 따른 온프레미스 제품 성장과 더불어 B2G, B2B 클라우드 제품 고성장이 더해지며 별도 기준 동사 실적은 매출액 1,500억원(+17.1% y-y), 영업이익 480억원(+16.4% y-y)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
  - AI 사업은 연초 생성형 AI 스타트업 기업 '포티투마루' 전략적 투자에 이어 전자문서 1위 기업 '클립소프트' 인수, 스페인 AI 생체인식 기업 '페이스피' 투자 등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지속하며 기술적 시너지 모색 중. 지난해 실적 변동성의 주요 요인이었던 자회사 한컴라이프케어 또한 사업 안정화 및 매각 추진 중에 있어 향후 동사 기업가치는 온전히 오피스와 AI 사업으로 평가받을 전망

- **AI에 진심이기에 기대할 점이 많은 2024년**
  - 지난 18일 PDF, 오피스 등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AI 데이터화하여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서 데이터 추출 SDK '한컴 데이터 로더' 출시. 이는 RAG의 일종으로 LLM을 보완하는 프로세스로서 생성형 AI의 신뢰도를 높이며 최신 정보를 광범위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수행
  - 이와 더불어 하반기 AI S/W 신제품 순차 출시 계획. 6월 말 출시 예정인 도큐먼트QA는 sLLM을 활용해 고객이 보유한 문서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를 필두로 MS Copilot과 유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체기술제품 한컴어시스턴트까지 연내 출시 목표. 본업에서의 유기적 성장과 M&A를 통한 비유기적 성장, AI 사업 성과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기대할 점이 많은 상황

한글과컴퓨터 제품 확장 라인업

자료: 한글과컴퓨터,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 본 자료는 당사 공식 Coverage 기업의 자료가 아니며,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공식 투자의견,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이브/Spot Comment

이화정 (02-768-7535)

자회사 어도어 관련 노이즈 발생

원문보기

- **하이브-어도어 경영진 간 갈등**
  - 22일 하이브 주가 7.8% 급락. 자회사 어도어 관련 노이즈가 발생함에 따라, 어도어 소속이자 하이브의 주요 아티스트 중 하나인 뉴진스의 향후 활동 차질 및 주요 프로듀서 민희진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탓.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자회사 어도어(하이브 80%, 민희진 18%, 기타 2%)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 등을 감지, 어도어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하고 이사회 교체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며 민희진 대표의 사임을 요구했음. 이에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또다른 자회사 빌리프랩(하이브 100%)의 신인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카피한 것이 진정한 문제이며 경영권 탈취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
  -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에게 보낸 감사질의서의 답변 시한은 23일 오후. 만일 응답이 없더라도, 하이브는 최대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 이 경우 최대 2달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최악을 가정해도, 실적 영향은 제한적**
  - 2023년 하이브 내 어도어의 영업이익 기여도는 11%. 뉴진스의 2개 앨범(싱글, 미니) 발매에 따른 음반 및 음원 매출 관련. 2024년 당사 추정치 기준 하이브 내 어도어의 영업이익 기여도는 14%. 뉴진스의 3개 앨범(5월 싱글, 6월 싱글(일본), 하반기(정규) 및 일본 공연(도쿄돔 2회) 계획을 감안함. 참고로 2025년의 경우 BTS의 완전체 활동이 재개되는 만큼, 그 기여도가 더욱 줄어들 전망
  - 어도어 측의 별도 요청이 없는 이상, 하이브는 뉴진스의 예정된 활동이 정상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 어도어 입장에서도 뉴진스의 예정된 컴백을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 컴백일까지 1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활동 중단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 만일 하반기 뉴진스의 활동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개의 앨범(하반기 정규) 발매 차질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바, 올해 실적에 대한 영향은 10% 미만일 것. 즉, 실적 차질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대부분 반영

- **중장기 관점에서의 영향은 더욱 제한적**
  - 하이브는 BTS(빅히트), 세븐틴(플레디스), TXT(빅히트), 엔하이픈(빌리프랩), 르세라핌(쏘스) 등 아티스트 라인업을 갖추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아일릿(빌리프랩), 투어스(플레디스) 등 신인 아티스트의 연이은 흥행으로 두드러지는 신인 Hit Ratio를 재차 증명해 보이는 중.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전반적인 레이블이 효율적인 콘텐츠 제작 및 신인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어 단일 레이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번 어도어 관련 갈등이 빠르고 원만하게 해소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만일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이브의 중장기 성장동력 훼손은 제한적일 것. 하이브에 대한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310,000원을 유지함

해외주식

P&G (PG.US/TP Consensus:171.0달러/CP:158.1달러)

한 위 (02-768-7452)

북미 수요 우려는 기우

원문보기

FY3Q24 매출액 시장 컨센서스 대비 소폭 하회. 다만 생산성 향상(코어 GPM +260bps)과 가격 인상 효과에 힘입어 수익성은 개선 흐름. 북미와 유럽 중심의 양호한 볼륨 성장과 중국의 점진적인 수요 회복 기대

- **긍정적인 북미 및 유럽 볼륨 성장세 지속**
  - 가격 인상 효과가 주도하는 유기적 탑라인 성장세(FY3Q23 +4% → FY3Q24 +3%) 지속. Greater China(FY3Q24 -10% y-y)와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요가 약한 상태이나 경영진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전망. 반면 북미와 유럽 등 핵심 사업 지역은 양호한 볼륨 증가세. 시장 우려와 달리 PB 제품으로의 북미 소비자 'Trading Down' 현상 제한적인 가운데 동사 북미 사업지역 볼륨 성장세는 최근 4개 분기 평균 +3% y-y 기록하며 시장 대비 아웃퍼폼. 유럽 포커스 시장의 경우에도 양호한 모멘텀(유기적 매출액 +7% y-y(볼륨 +4% y-y)). 제품 우위와 프리미엄 브랜드 이점 등이 볼륨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해석. 퀄리티 실적주 관점에서 긍정적인 투자 시각 유지

- **FY2024 3분기 Review: 생산성 향상과 긍정적인 수익성 개선 흐름**
  - FY2024 3분기(1~3월) 매출액 202.0억달러(+0.6% 이하 y-y), 영업이익 44.6억달러(+5.0%), 지배주주 순이익 37.5억달러(+10.5%), 주당순이익 1.52달러(+10.9%) 기록.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하회한 반면 EPS는 상회. 지난해 단행한 가격 인상 효과(+3% y-y)가 이어지며 유기적 매출액 +3% y-y 달성
  - 제품 믹스와 볼륨 효과가 크지 않은 가운데 동사의 실적은 여전히 가격 인상 효과가 견인하고 있는 구간. 제품군별 유기적 매출액(y-y)은 1) 뷰티 +3%(이하 볼륨 효과 +1%), 2) 그루밍 +10%(+2%), 3) 헬스케어 +2%(-4%), 4) 패브릭 & 홈케어 +3%(+1%), 5) 유아, 여성 & 패밀리 케어 0%(-3%) 기록

P&G FY2024 3분기 실적 Review (단위: 백만달러, %)

	3Q23	4Q23	1Q24	2Q24	3Q24P				4Q24E
					발표치	y-y	q-q	컨센서스	컨센서스
매출액	20,068	20,553	21,871	21,441	20,195	0.6	-5.8	20,459	20,922
영업이익	4,248	4,162	5,767	4,433	4,460	5.0	0.6	4,363	4,237
영업이익률	*21.2*	*20.3*	*26.4*	*20.7*	*22.1*	--	--	*21.3*	*20.3*
세전이익	4,288	4,233	5,802	4,496	4,592	7.1	2.1	4,393	4,222
(지배)순이익	3,397	3,384	4,521	3,468	3,754	10.5	8.2	3,495	3,362

주: 6월 결산 기업, GAAP 기준
자료: P&G, FactSe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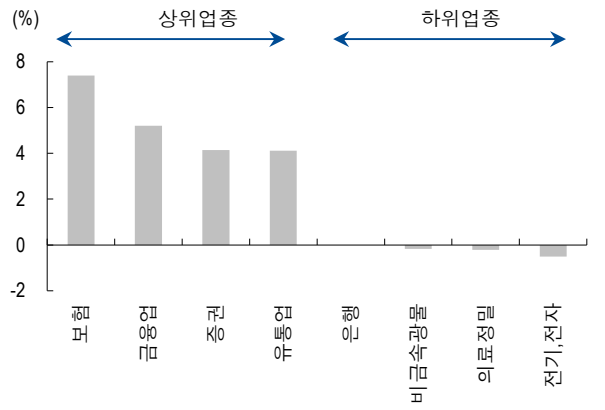
Domestic Market

Trading Summary		Index 22-Apr	19-Apr	18-Apr	17-Apr	16-Apr	Performance/Spread 1Day	1Week	1Month	1Year
거래소	주가지수(P,%)	2,629.44	2,591.86	2,634.70	2,584.18	2,609.63	1.45	-1.53	-4.33	3.34
	거래량(백만주)	402	809	479	414	570	-408	-205	-143	-133
	거래대금(십억원)	11,021	14,045	10,571	9,779	12,258	-3,024	-1,013	-621	898
코스닥	주가지수(P,%)	845.82	841.91	855.65	833.03	832.81	0.46	-0.77	-6.43	-2.65
	거래량(백만주)	899	1,101	957	931	931	-202	-83	-73	-181
	거래대금(십억원)	8,014	9,021	7,774	7,959	8,423	-1,007	-412	-1,983	-1,857
투자자별순매수(순매도)										
거래소	외국인(십억원)	-750	-344	574	-165	-268	-750	-952	3,880	20,627
	국내기관(십억원)	784	-667	25	-214	-236	784	-309	-4,149	-4,669
	개인(십억원)	-58	925	-605	360	494	-58	1,116	123	-16,972
코스닥	외국인(십억원)	-75	-358	260	-31	-158	-75	-362	-516	1,886
	국내기관(십억원)	-31	109	63	95	-10	-31	226	-499	-5,015
	개인(십억원)	118	249	-311	-60	185	118	180	1,381	7,274

주: 투자자별순매수의 Performance/Spread는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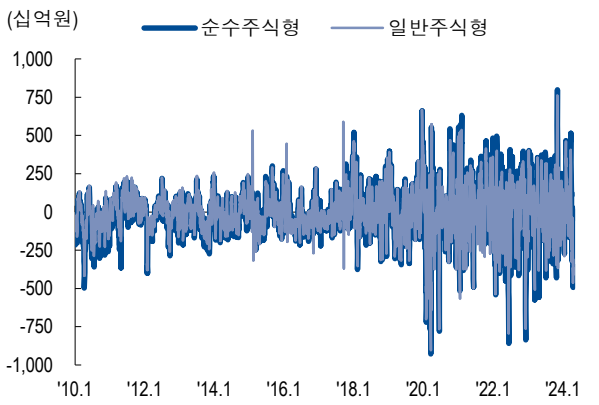
Market Indicators									
3년만기 국고채(%,%P)	3.51	3.47	3.43	3.48	3.47	0.04	0.07	0.23	0.25
3년만기 회사채(AA-)(%,%P)	4.02	3.98	3.96	4.01	4.01	0.04	0.04	0.10	-0.06
콜금리(%,%P)	3.53	3.51	3.52	3.49	3.42	0.02	0.04	0.06	0.02
시가총액(조원)	2,544	2,513	2,554	2,503	2,524	31.07	-38.81	-123.54	122.04
원/달러 환율(원,%)	1,379.20	1,382.20	1,372.90	1,386.80	1,394.50	-0.22	-0.35	3.05	3.84
원/100엔 환율(원,%)	895.89	889.77	898.36	901.91	897.43	0.69	0.12	2.45	-9.47
증시주변자금									
고객예탁금(십억원)	-	55,475	55,060	55,269	57,597	-	-1,193	3,468	2,275
미수금(십억원)	-	981	993	965	958	-	43	-27	753
신용잔고(십억원)	-	18,936	19,055	19,284	19,219	-	-215	-413	-1,266
순수주식형수익증권(십억원)	-	108,843	108,843	108,648	109,293	-	-1,763	-2,106	11,443

Daily Sector Performance



자료: KRX

Domestic Equity Fund Flow



자료: AMAK, Zero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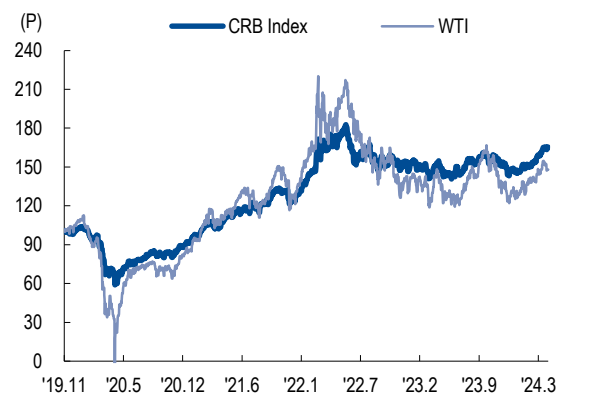
Global Market

해외주요증시		Index 22-Apr	19-Apr	18-Apr	17-Apr	16-Apr	Performance/Spread 1Day	1Week	1Month	1Year
미국	NASDAQ(P,%)	15,451	15,282	15,602	15,683	15,865	1.11	-2.73	-5.95	27.99
	S&P500(P,%)	5,011	4,967	5,011	5,022	5,051	0.87	-1.01	-4.27	21.22
	Dow Jones(P,%)	38,240	37,986	37,775	37,753	37,799	0.67	1.34	-3.13	13.11
유럽	영국(P,%)	8,024	7,896	7,877	7,848	7,820	1.62	0.73	1.17	1.39
	독일(P,%)	17,861	17,737	17,837	17,770	17,766	0.70	-0.92	-1.90	12.46
아시아	일본(P,%)	37,439	37,068	38,080	37,962	38,471	1.00	-4.57	-8.44	31.07
	대만(P,%)	19,411	19,527	20,301	20,213	19,902	-0.59	-5.08	-4.04	24.41
	중국(P,%)	5,831	5,747	5,804	5,750	5,744	1.47	-0.43	1.28	-13.79
	인도(P,%)	73,649	73,088	72,489	72,944	72,944	0.77	0.34	1.12	23.46
라틴	멕시코(P,%)	56,552	55,863	55,739	55,416	55,797	1.23	1.01	-0.10	4.39
	브라질(P,%)	125,573	125,124	124,196	124,171	124,389	0.36	0.19	-1.14	20.32
국제금리 및 환율										
금리	미국채 10년(%,%P)	4.61	4.62	4.63	4.59	4.67	-0.01	0.01	0.41	1.04
	스프레드(10년-2년) (%,%P)	-0.36	-0.37	-0.35	-0.34	-0.32	0.00	-0.04	0.03	0.25
환율	엔/달러(엔,%)	154.85	154.64	154.64	154.39	154.72	0.14	0.37	2.27	15.42
	달러/유로(달러,%)	1.07	1.07	1.06	1.07	1.06	-0.01	0.29	-1.42	-3.01
국제 원자재 가격										
	CRB Index(P,%)	298	298	296	294	297	-0.01	-0.02	4.32	10.09
	WTI ($/Barrel,%)	83	83	83	83	85	0.00	-2.66	2.59	6.85
	Gold ($/Troy Ounce,%)	2,327	2,392	2,379	2,361	2,383	-2.70	-2.35	7.47	17.36
	구리($/Metric ton,%)	9,876	9,876	9,735	9,583	9,468	0.00	3.13	11.39	12.30

Global Company Performance	1Week (%,%P) 해외	국내	Gap	1Month (%,%P) 해외	국내	Gap	PER (배) 해외	국내
Intel/삼성전자	-5.23	-7.42	2.19	-19.17	-3.55	-15.62	89.23	39.28
Micron Technology/SK하이닉스	-10.09	-8.82	-1.27	-0.99	1.06	-2.05	-	-
Philips/LG전자	-1.50	-0.54	-0.95	2.83	-7.44	10.27	-	23.65
NTT Docomo/SK텔레콤	0.00	0.59	-0.59	0.00	-4.14	4.14	12.59	10.19
Google/NAVER	1.04	-1.04	2.08	4.07	-4.24	8.31	27.01	27.91
Toyota/현대차	-6.64	1.45	-8.09	-9.17	0.62	-9.78	20.99	5.21
Nippon Steel/POSCO	-3.36	1.15	-4.51	-7.59	-7.82	0.22	4.77	17.65
Exxon Mobil/SK이노베이션	0.74	0.00	0.74	6.23	0.00	6.23	13.54	38.60
Singapore Airlines/대한항공	1.11	2.22	-1.11	-0.47	-4.82	4.35	18.09	7.15
Mitsubishi Heavy/현대중공업	-4.00	1.02	-5.01	-0.07	-5.24	5.17	35.81	3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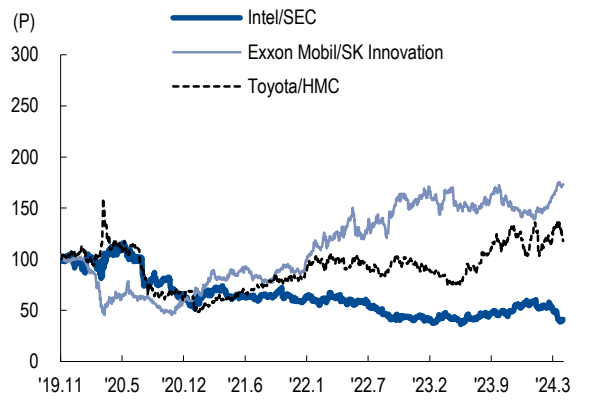
주: 해외=해외주식의 수익률, 국내=국내주식의 수익률, Gap=해외와 국내주식의 수익률의 차

Global Commodities Price Trend



자료: Bloomberg, Dramexchange

Global Company Relative Performance



자료: Bloomberg

〈종목 투자등급 (Stock Ratings)〉

-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Buy(15%초과), Hold(-15%~15%), Sell(-15%미만)로 구분
- 본 조사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